"정상문 12억 횡령 알고 있었나"

■ 盧 서면질의서 어떤 내용 담았나

600만달러 전달 과정 개입 여부 포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앞서 보낸 서면질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모두 7쪽 분량인 서면질의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질문이 폭넓게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금 횡령, 몰랐나요(?)=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005년부터 2007년 7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했다.

검찰은 비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뭉칫돈으로 만들어졌고 일부만 지출됐을 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점으로 미뤄 노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묵시·명시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서면질의서에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것을 노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600만 달러'의 주인은 당신인가요(?)=검찰이 현재 노 전 대통령 몫으로 의심하는 불법성이 짙은 자금은 '600만 달러'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이 돈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 돈이 노 전 대통령 몫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또 2007년 6월 청와대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100만 달러를 줬는데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고 권 여사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전달 과정에 개입했거나 최소한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3억원' 왜 권 여사의 것이라고 했나요(?)=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뒤 이 돈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 돈이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일단 자신의 최측근인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을 막고 관련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3억원의 행방을 놓고 노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검찰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이 돈의 행방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물 유출 등은 빠져=이번 서면질의서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과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 홈피 폐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대외 창구역할을 했던 홈페이지 폐쇄를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지지자)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된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며 "적어도 한발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평가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가운데 22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경수 비서관의 배웅을 받으며 사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실세 '우수수'… 盧 고립무원

정상문·박연차·강금원 철창신세
이광재·이강철씨도 지난달 구속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검찰의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경제적 후원자, 오랜 친구, 정치적 동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검찰의 칼날에 우수수 잘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21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되면서 '노무현의 남자들'이라고 불렸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 전 비서관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 3인방이 차례로 모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기업인 2명과 노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그의 복심을 꿰뚫었던 최측근이다.

또, 공교롭게도 노 전 대통령의 퇴임을 반년 앞둔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뒤 사업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강 회장의 주선으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던 '3자회동'의 주역이기도 하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도 예외 없이 '추풍낙엽' 신세가 되고 있다.

'우(右) 광재'로 널리 알려진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박 회장 등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좌(左) 희정'으로 불린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박 회장에게서 상품권 5천만원어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강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수사 리스트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도 참여정부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가 결국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은 박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상고 동창인 정화삼씨가 같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건평 씨의 사위이자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도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에 체포된 바 있다.

더욱이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불의 일부를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를 수차례 소환조사를 했으며 딸 정연씨와 사위의 계좌도 추적 중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에게로 흘러들어간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와 관련, 검찰과 직접 맞닥뜨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재보선 끝까지 방관?

25일 대구행 관심

4·29 재보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중적 지지도가 현역 정치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박근혜 의원이 움직일 경우, 박빙으로 꼽히는 인천 부평을과, 경주 등의 선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박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서 '부재'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당의 지원유세 요청은 거절했지만, 영남권에 발을 들여놓는 자체도 피했다.경주 재선거에 자신의 특보 출신인 정수성씨가 무소속 출마,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와 친이-친박 대결을 벌이기 때문이다.

미묘한 상황인 만큼 이제까지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삼가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주류 측에서는 선거 마지막까지 '박풍(朴風)'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일 박 전 대표의 대구행이 문제다. 박 전 대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벌어지는 '비슬산 꽃축제' 참석을 위한 방문이지만, 선거일을 나흘 앞둔 미묘한 시기인 만큼 신경이 쓰이는 셈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조선대 임시이사 철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사진)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 7명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선대 임시이사 재파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조속히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1년6개월동안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교과부의 뜻대로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 민심을 헤아리기보다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는 극단적 조치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참석했다.

"무등산 조례 폐기하라"

○…무등산 관광자원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 조례)이 광주시의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화순군과 담양군이 조례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나서 조례 제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구충곤 의원(민주당·화순)은 22일 화순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등산의 상징인 입석대·규봉암·천황봉 일부가 화순과 담양 등 전남에 속해 있는 데도 전체 무등산이 마치 광주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추진되고 있다"며 "화순·담양 등 전남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광주시의회의 무등산 조례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주장해온 무등산 조례 폐지 및 국립공원 승격 등과 맞물려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빛고을 노인타운 방문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과 의원들이 22일 남구 노대동에 건립 중인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을 방문,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 www.ins13.kr
반갑다! 친구야
• 일 시 :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 참석대상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생 앳 20년전 은사님 광주 인성고 총동문회 임원 이사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강천규 TEL : 011-614-0898 최성훈 TEL : 011-611-0442 송상훈 TEL :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림
홈페이지 www.inseong.or.kr
•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장 : 박 형 욱
• 1부행사 : 축구, 배구, 특구, 줄다리기, 400m계주
• 2부행사 : 초청가수공연, 각기주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 특별행사 : 가족대항게임, 행운권추첨, 어린이미술사생대회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사무실 연락처062)603-3833

공인중개사 광주 박문각 공인중개사전문학원
평일반 국비환급 100%
▶ 합격률 100% 책임 지도 관리 ▶ 출석부 관리, 숙제, 쪽지 시험 시행
▶ 박문각 교재, 동영상30%DC ▶ 기출문제 풀이(수요일:민법, 목요일:개론, 오후 3시~5시)
본원만의 합격비법 전수
개강 평일반 5월1일(금) 주말반 4월25일(토)
"전국 최다,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529-8838
■ 위치:운암동 광암고가 옆 삼애신협 2층
■ BUS:37번, 65번, 89번, 98번
■ BUS:운암고가 입구(제2광천교) 26번, 38번, 47번, 64번, 51번
■ BUS:서강정보대 입구 18번, 58번, 63번
상무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15% 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찰학 오탄 • 신 경향 경찰학 개론 직강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윤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 메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 꼭꼭 찍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행법 허문포 • FIRST최강 형법 직강 •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행소법 김현중 • 사시 1차·3회 합격 • 신림동 법원 경찰수강대상 10년 강의 • 청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226-5050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7·9級 공무원 全직렬
30 40 늦깍이 주부반모집 살 한 페지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향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인원 {국가직 9급 2320명, 7급 600여명 공채 지방직 7·9급 일반직 약4000여명 공채
•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23일, 7급 9월26일 시행 서울7·9급 행정7월19일, 기술직렬 8월17일예정
개강 5월 1일 (주·야 평일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 정독실300여석! • 구내식당
• 인터넷정보실! • 지하주차장!
• 맞춤식 학원을 최신시설!
• 매월말 토요일 정학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